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서진시스템(178320)

통신장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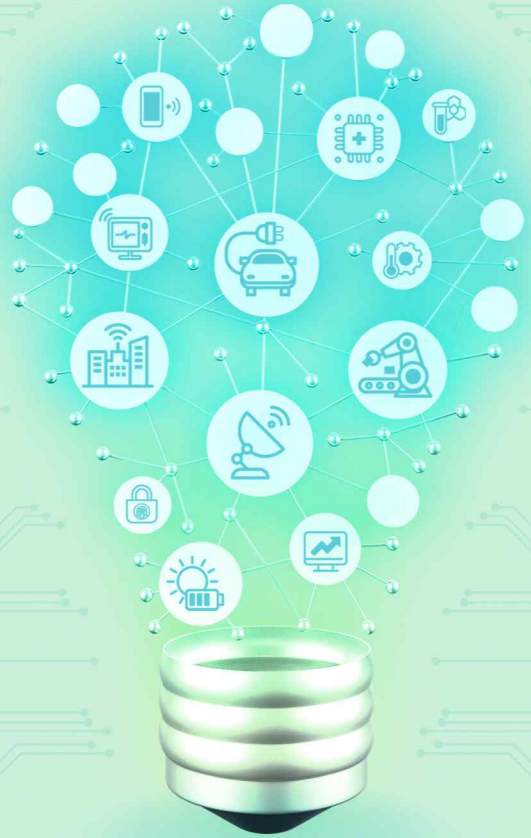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백하영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시스템(178320)

매출처 다변화와 신사업 진출로 성장하는 금속소재 부품 제조기업

기업정보(2022/04/11 기준)

대표자	정내혁
설립일자	2007년 10월 30일
상장일자	2017년 03월 27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주요제품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핸드폰, ESS 장비 부품 등

시세정보(2022/04/11 기준)

현재가	39,15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7,321억 원
발행주식수	18,790,321주
52주 최고가	48,300원
52주 최저가	31,450원
외국인지분율	5.89%
주요주주	
전동규 외 12인	31.74%

■ 일괄생산체제를 갖춘 금속소재 부품 제조기업

서진시스템(이하 동사)은 1996년 개인기업으로 설립되어 2007년 법인전환하였으며,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통신장비, 핸드폰, 반도체 장비, ESS 등의 부품을 알루미늄을 주 소재로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제품의 원재료 가공부터 후처리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기술을 내재화하고 국내외 제조 법인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였다. 2015년 (주)텍슨을 인수하며 시스템 설계 역량을 강화하여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전 공정을 수행하는 일괄생산체제를 갖추었으며 중국, 미국, 베트남에 위치한 종속회사를 운영하여 해외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 제품군 확대와 글로벌 매출처 다변화로 성장

동사는 매출처 다변화와 제품군 확대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동사는 통신장비 사업 부문에서 에릭슨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였으며 ESS 장비 부품 사업에서 글로벌 Energy Storage 1위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Fluence Energy)에 2021년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 부품 부문의 주 고객사인 램리서치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 증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핸드폰 부품 사업의 주 매출처인 삼성전자가 2021년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가운데, 노트북, 태블릿 PC 부품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다. 동사는 전 사업 부문의 이어지는 호재에 2021년 설립이래 최고 매출을 경신하였다.

■ 신규사업 추진과 우호적인 배경시장

2020년 국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12%로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며 친환경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차량 경량화에 대한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동사는 신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출해 삼성SDI에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친환경 및 경량화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이를 통해 시장 흐름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9	3,923.6	20.9	544.0	13.9	489.9	12.5	20.3	9.8	111.0	2,688	14,558	10.7	2.0
2020	3,219.0	-18.0	49.1	1.5	-58.4	-1.8	-2.2	-0.9	186.1	-304	13,364	-	3.8
2021	6,061.5	88.3	580.0	9.6	386.1	6.4	12.8	4.4	191.5	2,091	19,169	20.7	2.3

기업경쟁력

금속소재 부품 일괄생산체계 보유

- 원재료 가공부터 후처리까지 생산 기술 및 설비 보유
- 2015년 텍슨을 인수하며 시스템 설계 역량 확보
- 베트남 제조법인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보유 및 안정적인 해외 고객사 대응

매출처 다변화 및 신사업 진출

-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
- 플루언스 에너지에 ESS 부품을 본격적으로 납품
- 배터리 케이스 등 전기차 관련 부품 사업과 알루미늄 소재의 자동차 부품 사업 진출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동사의 주요 사업 분야 및 핵심 기술

- 핵심기술: 금속가공 기술 및 시스템 설계 기술
- 주요 사업: 알루미늄을 주 원재료로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휴대폰, ESS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
- 통신장비 부품: 통신장비 합체 제조 및 설계, 조립
- 휴대폰 부품: 휴대폰, 노트북 케이스 임가공 및 조립
- 반도체 장비 부품: 식각, 증착 장비의 부품, 구동장치
- ESS 부품: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제조 및 조립

동사의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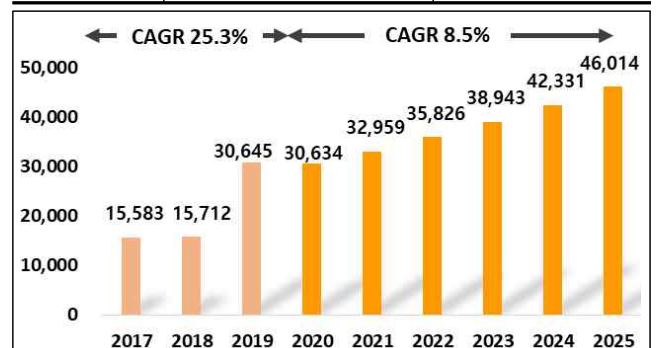


시장경쟁력

국내 알루미늄 주물 시장 규모(MarketsandMarkets)

- 대규모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장치산업
- 생산설비 현황과 가동률이 수익 창출과 이어짐
-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경량성, 친환경성을 보유한 알루미늄 소재 사용 확대

년도	시장규모	CAGR
2017년	1조 5,583억 원	8.5%▲
2025년	4조 6,014억 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ISO14001(환경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환경 관련 법상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동사는 친환경 재료인 알루미늄을 주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부품 사업과 ESS 부품 사업에 진출하며 환경보호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ISO9001(품질경영 시스템)을 취득하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품질관리 부서를 보유함.
- 동사는 동호회 활동, 건강검진, 중식 및 석식 지원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용 중임.
-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근속연수는 동 산업(C25) 이상임.

G

(기업지배구조)

-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근 감사를 선임함.
- 동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받고 있음.
- 동사는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 활동을 진행한 바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매출처 다변화와 신사업 진출로 2021년 최고 매출 경신

동사는 알루미늄을 주 원재료로 통신장비, 핸드폰, 반도체 장비, ESS 장비 등의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으로, 매출처의 다변화 및 ESS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 등의 신규 사업 진출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설립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6년 7월 개인기업인 서진테크로 설립되어 2007년 10월 (주)서진시스템으로 법인 전환 하였으며, 2017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경기도 부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금속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알루미늄과 철재류를 주 원재료로 사용해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휴대폰, ESS 장비 등의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다.

동사는 금속 제품의 설계, 금형, 잉곳, 다이캐스팅, 압출, 사출, 도금, 도장 등 원재료 가공부터 주요 생산공정별 요구되는 기술을 내재화하고, 해외 제조 및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생산시설과 장비 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고객사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텍슨을 인수하여 동사의 금속가공에 대한 역량과 텍슨의 시스템 설계 기술을 융합해 각종 장비의 구동장치에 대한 제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 영역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부품, 가정용품, 로봇 부품, LED 부품 등의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는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과 ESS 기업 플루언스 에너지를 신규고객으로 확보하여 삼성 그룹에 집중되었던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됨에 따라 매출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동사는 2021년 전년 대비 88.3% 증가한 6,061.5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설립 이후 최대 매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동사의 사업 영역



*출처: 동사 회사소개서(2022.02),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 현황

동사의 최대주주는 전동규 이사로 30.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한 지분은 31.67%로 확인된다. 동사의 창업주인 전동규 이사는 1996년 반도체 부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개인기업인 서진테크의 설립부터, 2007년 법인전환 및 2017년 코스닥 상장까지 20여 년간 동사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전동규 창업주는 2019년 11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동사의 대표이사는 2013년 6월 사장으로 선임되었던 정내혁 대표이사로 확인된다.

동사는 국내 부천, 의정부, 화성, 용인, 경북 구미에 총 6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에 판매·유통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법인과 베트남 제조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의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해 2021년 3월 설립한 헝가리 법인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종속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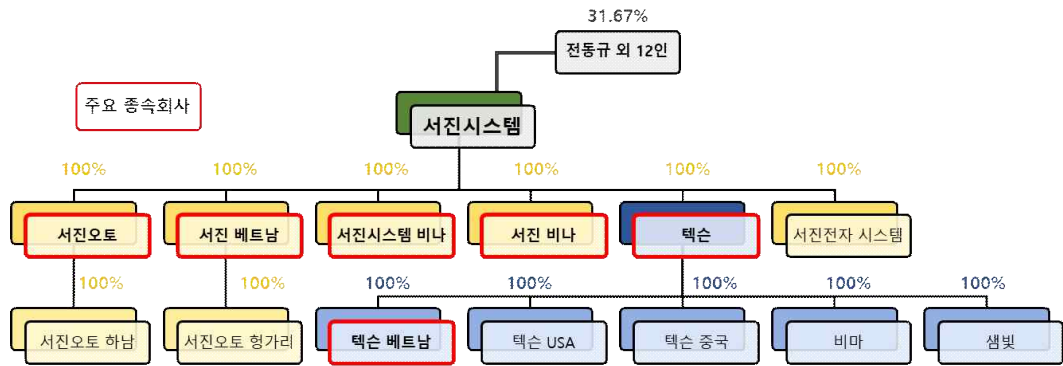
[표 1] 동사의 종속회사 현황

종속회사	사업: 제품	위치	설립일
SEOJIN SYSTEM VINA CO.,LTD.	제조: 통신 중계기 합체	베트남 박닌성	2011.10.26
SEOJIN VINA CO.,LTD.	제조: 핸드폰 메탈케이스, 핸드폰 부품 조립 등	베트남 박닌성	2014.11.28
SEOJIN AUTO CO.,LTD.	제조: (전기)자동차 부품 등	베트남 박닌성	2016.12.15
SEOJIN AUTO CO., LTD - HANAM BRANCH	제조: 통신 부품 등	베트남 하남	2020.07.15
SEOJIN ELECTRONICS SYSTEM CO.,LTD.	개발, A/S: 통신 중계기 합체	중국 심천	2014.03.12
SEOJIN VIETNAM CO.,LTD.	제조: 통신, 무선, 자동차 부품, 기타 제품 등	베트남 박장성	2019.03.13
(주)텍슨	제조: 통신, 반도체, ESS 장비 등	의정부, 구미, 화성	2001.02.07
TEXON VIETNAM CO.,LTD.	제조: 통신, 반도체, ESS 장비 등	베트남 박닌성	2016.12.08
TEXON CHINA CO.,LTD.	A/S: 통신 중계기 합체 개발 및 A/S	중국 광둥성	2015.02.05
TEXON USA INC.	판매, A/S: 통신 중계기 합체	미국 캘리포니아	2016.04.03
(주)비마	제조: 케이블	화성	2006.05.02
(주)쌔빔	제조: 반도체 장비	용인	2013.04.11
SEOJIN AUTO HUNGARY Limited Liability Company	제조, 도매: 기타 특수목적 기계장치 및 장비	헝가리 부다페스트	2021.03.30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2015년 인수한 텍슨과 베트남 박닌성, 박장성에 위치한 제조법인인 서진시스템 비나, 서진비나, 서진오토, 서진베트남, 텍슨 베트남이 있다. 주요 종속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750억 원 이상이거나, 동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동사는 베트남 제조 법인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고객사 대응으로 고객사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림 2] 동사의 지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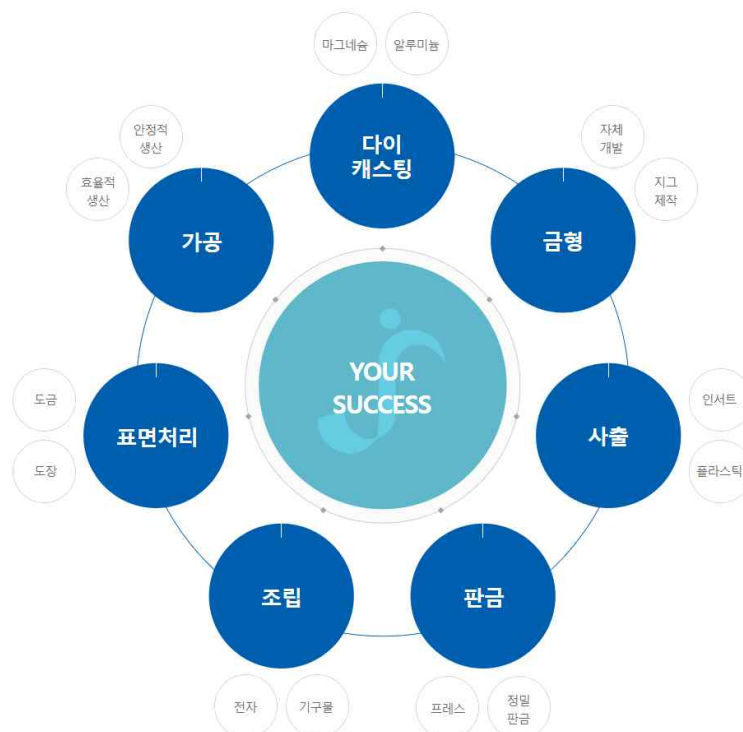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사업 영역 및 제품, 기술력

동사의 핵심기술인 금속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동사는 고객사의 생산 계획에 따라 금속 소재의 제품을 제작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다. 사업 부문은 크게 통신장비 부품, 휴대폰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ESS 부품으로 구성되며 그 외 기타 부문에는 케이블, 알루미늄 잉곳, LED 케이스, 커넥터, 로봇, 중공업 관련 설비 및 기자재 등이 존재한다. 잉곳은 금속재료를 녹여 비교적 단순한 모양의 틀에 주입하여 굳힌 것으로, 후에 압연, 단조 등 가공 과정을 거치는 중간 단계의 금속 덩어리이다. 동사는 기존에는 외부에서 알루미늄을 조달하여 주조 등의 작업을 거쳐 제품을 제작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알루미늄 버진을 수입하여 직접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특수금속을 첨가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림 3] 동사의 주요 기술력 및 강점



*출처: 동사 IR 자료(2022.02),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동사의 매출 현황

동사의 총 매출액(연결기준)은 2019년 3,923.6억 원에서 통신장비 부품 부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며 2020년 3,219.0억 원으로 축소하였다. 하지만, 2021년 ESS 부품 부문에서 매출처 확대와 함께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되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88.3% 증가한 6,061.5억 원을 기록하며 설립이래 최대 매출을 경신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부문은 22.9%인 통신장비 부품 부문인 것으로 확인되나, 2019년 51.5%, 2020년 32.1%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ESS 부문은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를 배경으로 2019년 6.6%, 2020년 9.4%, 2021년 21.5%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부문도 2019년 4.6%, 2020년 10.5%, 2021년 11.7%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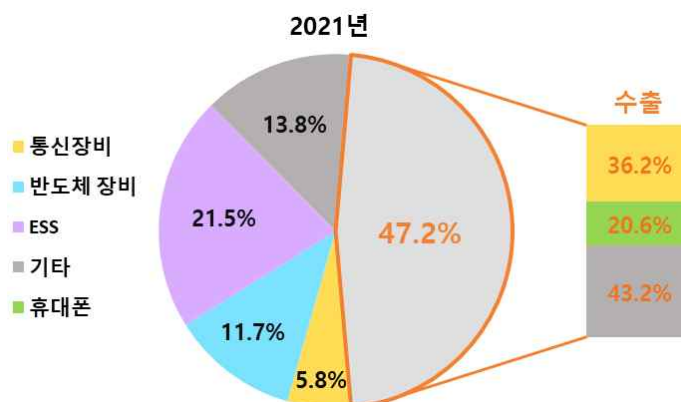
[그림 4]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수출 매출 비중은 2019년 59.2%, 2020년 45.9%, 2021년 47.2%로 등락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수출 매출액의 36.2%가 통신장비 부문이며 20.6%는 휴대폰, 나머지 43.2%는 기타 부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21년 기준, ESS 부품과 반도체 장비 부품의 매출은 전량 내수 매출이며 휴대폰 부품 매출은 수출 매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 동사의 내수, 수출 매출 현황 (단위: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ISO14001(환경경영 시스템)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동사는 성질이 쉽게 변하지 않아 재활용율이 높은 알루미늄을 주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친환경차 부품 및 ESS 부품 사업으로 진출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국내외 환경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환경 관련 법상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사의 임직원들에게 텀블러,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ISO9001(품질경영 시스템)을 보유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품질관리, 품질보증 부서를 운영하여 고객 만족을 도모하고 있다. 동사는 교육비를 지원하여 임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중식 및 석식을 제공하는 등의 복리 후생제도를 운용하여 임직원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7.4%로 동 산업(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인 18.5% 이하이나,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148.6%로, 동 산업 평균인 73.5% 이상으로 확인된다.

[표 2]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전체)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277	244,786	3.7	6.8	43,899	43,584
여	22	55,406	5.5	5.0	30,636	30,948
합계	299	300,192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1.02),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S) 부문에서,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동사는 금융, 회계, 경제 전문성을 보유한 상근 감사를 선임하여 내부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 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확인받고 있다. 또한, 주주 환원을 위해 2016년~2019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시행한 바 있다.

[표 3]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30.83
사내/사외/기타비상무	2/1/1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63.16
사외이사 재직기간	6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
내부위원회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동향

우호적인 전방산업의 배경시장과 친환경 및 경량화 소재 알루미늄 제품 확대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은 대규모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으로, 원재료의 시세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동사의 제품의 주 원재료인 알루미늄은 친환경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량화 및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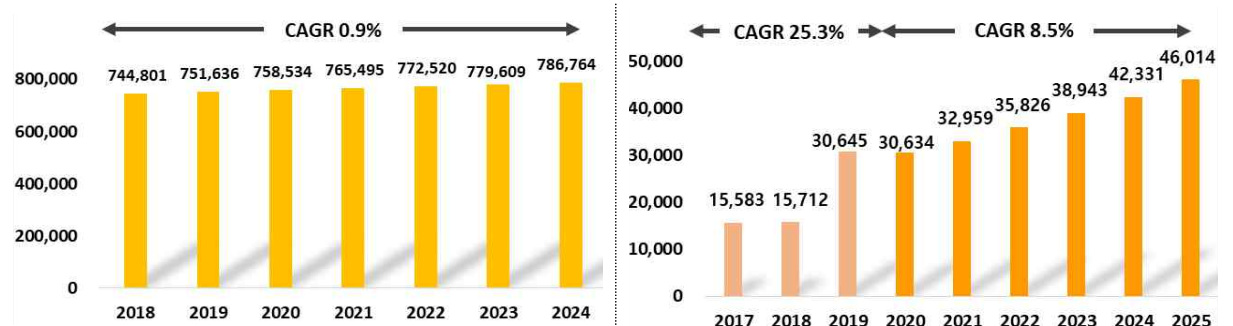
■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주물 시장규모 및 동향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과 알루미늄 주물 산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에 해당되며 보유한 생산설비 현황과 가동률이 수익 창출과 이어진다. 해당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국제 원자재 시세에 매우 민감하여 그에 따른 가격변동이 크다는 점이 있다. 또한, 시장 내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신소재를 사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전방산업으로 조선, 자동차, 반도체 장비, 기계부품 산업 등이 존재하며 주로 전방산업 수요자의 수주 및 요구에 따라 제품의 형태가 다양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방식을 갖는다. 경량성을 활용하여 전방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시장 내 기업들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동사는 알루미늄, 철재류 등을 주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다양한 산업에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시장규모는 2018년 74조 4,801억 원에서 연평균 0.9%로 성장해 2024년 78조 6,7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 주물 시장의 경우, MarketsandMarkets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7년 1조 5,583억 원에서 2020년 3조 634억 원으로 연평균 25.3% 성장률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8.5%로 성장하여 2025년 4조 6,014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국내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출하액(좌)/국내 알루미늄 주물 시장규모(우) (단위: 년, 억 원, %)



*출처: 통계청, Aluminum Casting Markets, MarketsandMarkets(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전방산업의 특징과 우호적인 시장 배경

동사는 통신장비, 휴대폰, 반도체 장비, ESS 등을 구성하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각 시장을 전방산업으로 가지며 관련된 시장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존재하여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통신장비 산업은 국가 인프라 산업인 통신시스템 산업과 연관되어 있어 통신망 구축, 통신 기술 도입 추진 등의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개시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Allied Market Research에 조사결과에 의하면 5G 기술 시장은 2020년 55억 달러에서 2026년 667억 9,000만 달러로 약 1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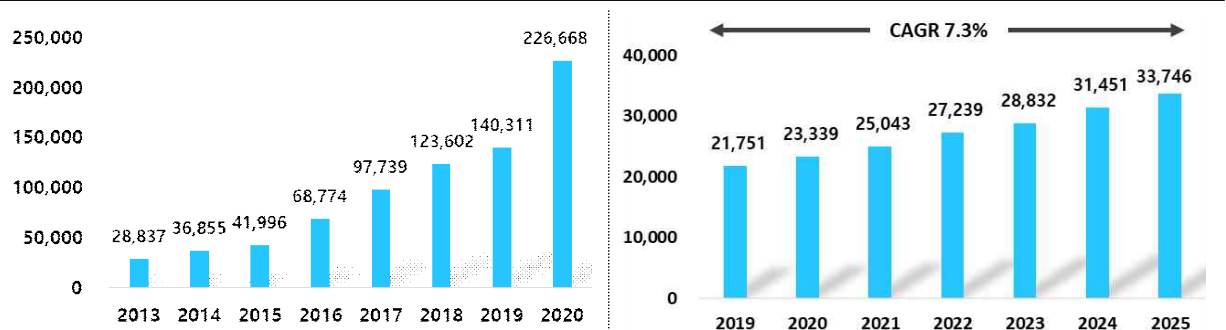
SNE Research에 의하면 세계 ESS 시장은 2015년 31억 달러에서 연평균 50.3%로 성장하여 2020년 171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SS 특례 요금제,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공급 인증서 가중치 확대 등의 정부 차원에서 ESS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며 ESS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증가하는 친환경차 수요와 친환경, 경량화 트렌드로 알루미늄 부품 사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020 자동차 산업 동향에 의하면, 2020년 국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12%를 차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맞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차량 경량화에 대한 개발과 함께 부품의 경량소재로의 대체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알루미늄은 경량금속 중 산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재로, 그 밀도는 철강 소재 대비 약 34% 수준이며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차세대 유망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Grand View Research에 의하면 세계 알루미늄 소재 시장 규모는 2019년 21,751백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3%로 성장하여 2025년 33,746백만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 소재는 압출, 주조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제조 가능하며 자동차, 선박,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응용되어 시장확대가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 제품 적용에 철강 소재 대비 비싼 단가와 생산라인 재편 등의 장애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위해 알루미늄의 가공성 및 성형성을 보존하며 기존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7] 국내 친환경차 판매 대수(우) / 세계 알루미늄 소재 시장규모(좌) (단위: 년, 대, 백만 달러, %)



*출처: Grand View Research, Lightweight Materials Market Size Report Analysis By Product(2018), 산업통상자원부, 2020 자동차 산업 동향(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업체 현황

동사의 경쟁업체로는 (주)이랜텍과 (주)알루코 등이 있으며 그 특징은 하기와 같다.

(주)알루코는 1956년 설립되어 2007년에 유가증권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알루미늄 소재의 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제품으로 전지, 전자, 통신 부품을 비롯해 자동차, 선박, 고속전철, 항공기 등 수송기계 부품과 태양광 모듈 프레임, 건축 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영역에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알루코는 금형부터 주조, 압출, 도장, 시공, 사후 관리까지 One Stop System을 갖추었으며,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다.

(주)이랜텍은 1982년 설립되어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휴대폰 부품과 가정용 ESS 생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 휴대폰 배터리 팩, 플라스틱 및 메탈 케이스와 노트북, 청소기, 전동공구 등 가정용 ESS의 배터리 팩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전자 및 삼성SDI 매출이 80% 내외를 차지하며 국내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인도에 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2021년 연간 연결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6,061.5억 원, (주)이랜텍이 7,635.5억 원, (주)알루코가 5,055.9억 원으로 (주)이랜텍의 매출 외형이 가장 큰 수준이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9.6%, (주)이랜텍 4.5%, (주)알루코 3.3%를 각각 기록하며 3개 업체 중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산업 전반적으로 흑자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동사의 주요 경쟁기업 현황

(단위: 억 원, %)

기준	(주)서진시스템	(주)이랜텍	(주)알루코
주요제품	알루미늄 부품 제조업	휴대폰 부품 제조업	TV 부품 제조업
매출액	6,061.5	7,635.5	5,055.9
영업이익	580.0	342.0	166.7
영업이익률	9.6%	4.5%	3.3%
순이익률	6.4%	4.4%	0.5%

*출처: 각 기업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Ⅲ. 기술분석

국내외 제조 법인의 생산 역량과 금속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괄생산체제 확립

동사는 알루미늄, 철재류와 같은 금속소재 원재료 가공부터 후처리까지 제품의 생산 전 공정에 대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일괄생산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신사업에 진출하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금속 소재 제품의 생산 전 공정에 대한 기술력 및 생산 설비 보유

동사는 2011년 4월 설립된 공인기업부설연구소와 종속회사 텍슨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제품별로 통신, 무선, 신사업 세 부분으로 나뉘지는 반면, 텍슨은 연구 분야별로 H/W(전장), 기구설계, 열/구조, 개발지원, BCP로 구분된다. 동사의 전체 매출 중 연구개발비용의 비중은 2019년 1.28%, 2020년 1.90%, 2021년 0.97%로, 일정 수준의 비용을 꾸준히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

구분	부서	내용
서진시스템	통신 파트	통신 함체의 기능 개선 및 관련 금형 등 제조공법 연구
	무선 파트	핸드폰 생산 관련 제조공법 연구
	신사업 파트	신사업 진행 관련 선행 개발
텍슨	H/W(전장) 팀	시스템, H/W 설계, 제품검증 시험, 국제 규격 해석
	BCP 팀	요구사항 분석, 기구 실장설계
	기구설계 팀	Enclosure 설계, Unit 기구설계
	열/구조 설계	실장 설계, Unit 단위 열 해석
	개발지원	개발지원

*출처: 동사 IR자료(2022.02), 홈페이지,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핵심기술력은 알루미늄, 철재류와 같은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다. 원재료의 용해부터 주조, 사출, 압출, 다이캐스팅, MCT 가공, 아노다이징, 표면연마 등의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력과 제조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처리 과정인 도금, 도장, 조립, 검사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품 생산을 위한 틀인 금형 기술을 보유하여 자체적인 금형 제작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산에 최적화된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생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종속회사를 통해 생산라인의 수직계열화를 이루었으며, 텍슨을 인수하며 구조해석, 열/유동해석, 실장설계 등의 시스템 설계 역량 또한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제품의 생산 전 공정에 대한 일괄생산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베트남 제조 법인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8] 동사의 생산 공정별 기술



*출처: 동사 IR자료(2022.02), NICE디앤비 재구성

■ 글로벌 고객사 포트폴리오 확대 및 제품군 다양화

동사는 최근 매출처를 확대하고 제품군을 다양화하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동사의 통신장비 부품 사업은 삼성전자, KMW, 에이스테크 등의 통신장비 제조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부품을 납품받은 기업들이 통신장비를 제조하여 KT, LG, SK와 같은 통신사에 장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통신장비 부품 부문에서 보유한 주요제품으로 소형기지국 장비인 RRH(Remote Radio Head), 소형 안테나 장비 RRU(Remote Radio Unit), 기지국의 데이터 처리부 DU(Digital Unit), 셋톱박스과 같은 통신장비의 합체와 기타 부품 등이 있다. 통신장비 부품 사업의 매출은 기존에 삼성전자에 집중된 구조를 나타냈으나 노키아, 화웨이,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Big 4 통신장비 제조기업으로 꼽히는 에릭슨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며 매출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금형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2년 본격적인 매출 시현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릴라이언스 지오와 후지쯔 향 통신장비 부품 또한 공급하기 시작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는 휴대폰 부품의 가공부터 아노다이징 후처리, 조립, 검사까지 수행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 휴대폰 부품 사업의 경우 주로 휴대폰 케이스 및 프레임을 임가공, 조립하였으나, 노트북과 태블릿 PC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제품군을 확장하여 생산하고 있다. 한편, 폴더블 폰의 등장과 같이, 최근 휴대폰 폼팩터(물리적 외형)가 다양해지는 추세로 이에 따른 동사의 중장기적인 수혜 가능성이 예상되며,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2021년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동사의 성장 또한 함께 기대된다.

[표 6] 동사의 통신장비 부품, 휴대폰 부품 사업 제품군

통신장비 부품			휴대폰 부품		
중계기	캐비닛	RRH 케이스	휴대폰 프레임	노트북 케이스	휴대폰 메탈케이스

*출처: 동사 IR자료(2022.02),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반도체 장비 부품 사업은 자회사인 텍슨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텍슨은 램리서치의 한국 생산법인과 램리서치 협력사인 싱가포르 UCT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21년 합병한 종속회사 썸빛은 반도체 증착 장비를 수리해서 재판매하는 리퍼비시(Refurbish)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텍슨의 구미 사업장에서는 식각·증착 장비의 프레임과 전원분배 장치를 공급하며, 2020년 신규 설립한 화성 사업장에서는 증착장비의 웨이퍼 트랜스퍼 모듈을 생산하여 2021년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동사의 고객사 램리서치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성 사업장에 반도체 장비의 OEM 생산을 위한 고객사의 승인 및 양산이 진행 중이며, 구미 사업장에 대규모 시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동사는 이를 통해 구미 사업장을 반도체 장비 부품의 생산 전담으로 전환하고 화성 사업장의 설비를 전면 재배치해 생산능력을 향상하여 고객사의 물량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동사는 ESS 부품 부문에서 기존 고객사였던 삼성SDI뿐 아니라, 지멘스와 AES의 합작회사인 플루언스 에너지를 추가로 신규고객으로 확보했다. 플루언스 에너지는 2021년 세계 1위 Energy Storage 기업으로, 동사는 2021년 플루언스 에너지에 제품을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하기 시작하였으며 플루언스 에너지가 미국, 아시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함에 따라 2022년 ESS 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동사의 사업별 제품군

ESS 장비		반도체 장비 부품		
ESS BCP	Battery Pack	식각/증착 장비부품	웨이퍼 트랜스퍼 모듈	증착장비 리퍼비시
				

*출처: 동사 IR자료(2022.02),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전기차 부품 사업 및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 사업 진출

동사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ESS 부품 사업 진출에 이어, 알루미늄 소재의 자동차 부품과 전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동사는 관련되어 베트남 생산시설을 통해 자동차 부품 및 전기 자동차 부품을 일부 양산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개발 및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 및 경량화 소재로 주목받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동사는 금속가공 기술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에 나섰다. 또한, 증가하는 친환경 차량 수요에 Battery Case와 같은 전기차 관련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여 삼성SDI에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고객사인 삼성SDI와 함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헝가리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 외 생활가전 용품의 OEM 생산, 공작기계, 중공업, 로봇 등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제품 다각화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표 8] 동사의 신규 사업 제품군

전기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로봇	생활가정 용품	공작기계	중공업
Battery Case	알루미늄 소재	OEM, A/S	OEM	OEM	설계, 가공, 도장 등
	 Alternator Bracket EGR Valve Housing Stator Heatsink Alloy Wheel				

*출처: 동사 IR자료(2022.02),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SWOT 분석

[그림 9]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친환경 알루미늄 부품 공급 확대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매출 외형 회복

전 세계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 트렌드 확산으로 차세대 성장 기반인 전기차 연료전지와 ESS 부문 알루미늄 제품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된 결과 2021년 큰 폭의 매출실적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향후 영업성과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 2021년 통신장비 부품과 ESS 부품 제품매출이 동사 매출을 견인

동사는 알루미늄 소재 응용제품 제조와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 제품의 최종 수요처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외 삼성 계열사, 램리서치, 테스콤 등 국내 반도체 장비와 전자기기 제조업체, 후지쯔 등 글로벌 기업이다. 2021년 기준 매출 유형은 알루미늄 소재 응용제품 제품매출이 65.8%, 제품 관련 부속품 등 상품매출과 기타매출이 34.2%로 각각 구성된 가운데, 알루미늄 소재 응용제품 품목별 매출 비중은 통신장비 부품 22.9%, ESS(에너지저장장치) 부품 21.5%, 반도체 장비 부품 11.7%, 핸드폰 부품 9.7%로 통신장비 부품과 ESS 부품 제품매출이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3개년간 수출 비중은 2019년 59.2%, 2020년 45.9%, 2021년 47.2%로 큰 변동 없이 등락을 나타냈다.

■ 친환경 부품교체 트렌드와 ESS 부문 수주확대로 매출 성장

알루미늄 소재 응용제품은 통신장비 부품, 핸드폰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ESS(에너지저장장치) 부품 등 다양한 부문에 납품되고 있어 각 전방산업의 경기변동 및 투자수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주력 시장인 통신장비 부품 부문의 전방 통신시스템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 산업으로 타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가운데,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신장비 부문과 메탈 소재 스마트폰 부문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20.9% 증가한 3,923.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한 전반적 수출 경기 부진에 이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특히 해외 통신장비 부품과 핸드폰 부품, 반도체 부품 사업부문에서 타격을 입으며 전년 대비 18.0% 하락한 3,219.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2021년에는 ESS 부문 수주물량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에 전년 대비 88.3% 증가한 6,061.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큰 폭의 외형성장을 나타내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 그린뉴딜 계획이 친환경 부품 관련 투자 확대로 이어지며 국내 알루미늄 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차 개발과 차량 경량화 목적으로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알루미늄 소재의 대체품이 없어 단기 내 산업 성장성은 안정적인 전망이다. 동사의 금속가공기술력과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원가경쟁력, 대기업 협력사 승인 과정 등 시장진입장벽,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CASE 부문과 효율적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ESS 부문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정적인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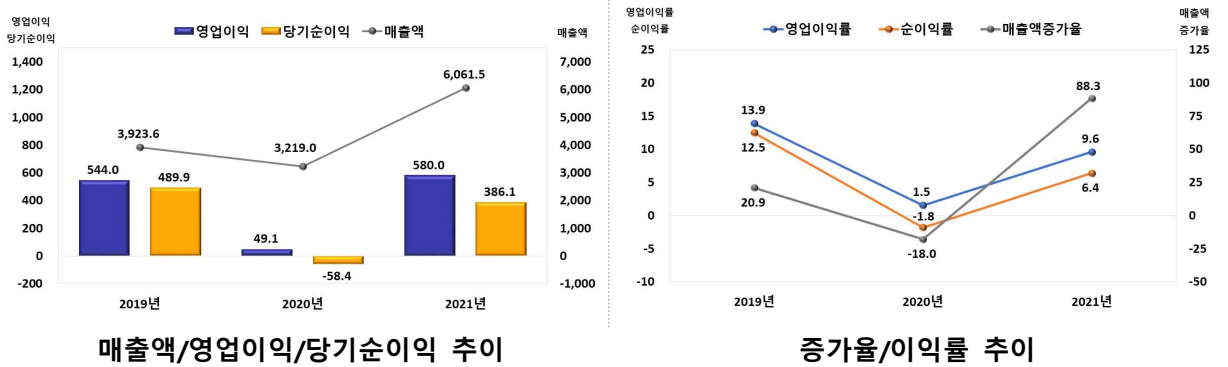
■ 2021년 실적 반등과 동시에 전 공정 내재화로 수익성 큰 폭으로 개선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과 철재류, 기타 모듈 제품 가격은 일반적으로 국제 시세의 변동과 환율 변동 등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매출원가율은 2019년 76.5%, 2020년 83.7%, 2021년 80.6%로 비교적 안정적인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며 특별한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알루미늄 소재 응용제품은 산업 특성상 연구인력 인건비(판관비의 31.9%), 경상연구개발비(판관비의 9.9%)의 부담이 높으며 주문제작형 제품특성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를 통한 다품종·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노하우를 확보한 결과 2019년 두 자릿수의 우수한 수익성 추이를 보였다.

2020년에는 매출 하락에 따른 판관비 부담이 확대되었고 알루미늄 직수입 발생, 중국-호주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재료를 대량 선구매하여 비축해 놓은 결과 매출원가 부담이 전년 대비 확대되어 영업이익률이 전년 13.9%에서 1.5%로, 순이익률이 12.5%에서 -1.8%로 급격히 약화되었다.

한편, 2021년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 9.6%, 매출액순이익률 6.4%를 기록하였고, 영업이익 580.0억 원, 당기순이익 386.1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실적 회복과 동시에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장비, ESS 부품 부문 사업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베트남 연결 회사 운영으로 금형 공정부터 도금, 도장라인까지 전 공정에 대한 생산시스템을 내재화하고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가공비 유출을 최소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림 10]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차입부담 높은 편이며 제한적인 유동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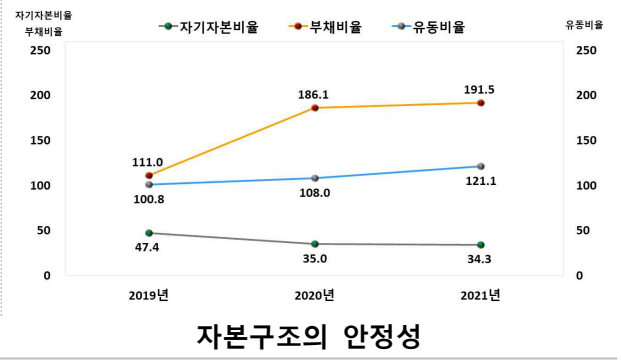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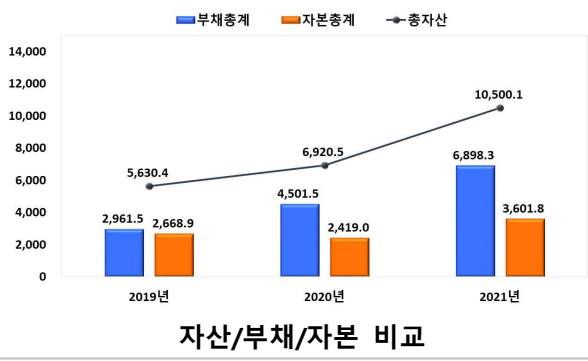
납기일에 맞춰 단기간에 대량생산이 필요한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며 연구개발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높아 시설자금 등 차입금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말 총자산의 17.4%에 해당하는 약 1,831.5억 원의 주식 발행초과금(1,487.1억 원)과 전환권대가(344.4억 원)를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에 계상한 가운데,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총차입금 등 전반적인 부채부담 확대로 재무안정성 지표들이 전년 대비 약화되어 다소 열위한 수준을 나타냈다.

[부채비율 191.5%, 자기자본비율 34.3%, 차입금의존도 41.9%]

베트남 공장 시설 확충과 현지 공장 원자재 구입 대금, 신제품 연구개발, 운영자금 조달 등에 소요된 차입금을 운용 중인 가운데, 최근 3개년 말 기준 동사가 사용 중인 차입금(금융리스부채 포함)은 2019년 2,166.6억 원(차입금의존도: 38.5%), 2020년 3,355.7억 원(차입금의존도: 48.5%), 2021년 4,400.2억 원(차입금의존도: 41.9%)으로 점차 확대되어 외형 대비 과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21년 말 기준, 현금성자산과 금융기관예치금(당좌예금, 정기예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의 보유 규모는 총자산의 약 2.3%인 240.9억 원(전기 말: 217.6억 원)이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차입금 총액의 10.7%(전기 말: 13.1%) 수준을 나타내며 다소 제한적인 단기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기타 이슈

2021년 11월 8일 통신장비 기구, 신재생에너지, 반도체제조용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동사의 주요 종속회사 (주)텍슨이 반도체/LCD 장비, 부품 일체 제조, 반도체 장비 리퍼비쉬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주)썸빛을 흡수합병했다. 합병목적은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달성으로 파악된다.



[표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3,923.6	3,219.0	6,061.5
매출액증가율(%)	20.9	-18.0	88.3
영업이익	544.0	49.1	580.0
영업이익률(%)	13.9	1.5	9.6
순이익	489.9	-58.4	386.1
순이익률(%)	12.5	-1.8	6.4
부채총계	2,961.5	4,501.5	6,898.3
자본총계	2,668.9	2,419.0	3,601.8
총자산	5,630.4	6,920.5	10,500.1
유동비율(%)	100.8	108.0	121.1
부채비율(%)	111.0	186.1	191.5
자기자본비율(%)	47.4	35.0	34.3
영업현금흐름	-184.9	-360.6	-53.3
투자현금흐름	-613.4	-1,106.8	-1,185.0
재무현금흐름	810.1	1,423.7	1,259.8
기말 현금	262.4	217.6	240.9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우호적인 정책환경 조성과 ESS·전기차 부문 사업 다각화로 중장기적 성장을 기대

신재생에너지, 그린뉴딜과 같은 친환경 정책으로 각 산업별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며 우호적 내수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ESS와 전기차 부품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북미 및 유럽향 해외고객 다변화를 도모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친환경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투자확대 추이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이며, 막대한 시장 잠재력이 예상되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SNE Research에 의하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15년 1.2GWh(31억 달러)에서 2020년 9.2GWh(171억 달러)로 연평균 50.3%씩 성장해온 가운데 국내에서도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ESS 설치용량이 급증하며, 연평균 192%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세계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 트렌드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친환경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투자확대로 이어지며 국내 알루미늄 소재 응용제품 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그린뉴딜(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동사는 차량 경량화를 위해 차량 부품, 차체에 알루미늄 소재 사용을 확대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및 전기 자동차 Battery CASE 제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종속회사 서진오토를 설립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저장 시스템의 파워 장치 부품 부문에 주력하고 있어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ESS·전기차 부품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 기대

이데일리 기사(2021)에 따르면, 동사는 2022년부터 ESS를 회사의 대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동사는 2021년 신규 거래처로 지멘스와 AES社가 합작 설립한 글로벌 에너지 소재 기업 플루언스 에너지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위탁생산(OEM)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고부가가치 사업인 ESS 분야가 회사의 전체 수익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용 부품도 성장 곡선이 가파르다. 기존에 주로 삼성SDI 향 부품을 제조하던 동사는 최근 6,850톤급 대형 다이캐스팅 장비를 도입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투자를 진행해 왔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의 차종 확대 모멘텀이 기대되며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 공급이 본격화되고, SK이노베이션, 베트남 대기업 빈그룹의 자동차 회사 '빈팩스트'와의 협업을 진행 중인 점, 가정용품을 포함한 기타 매출의 미국 대형마트 향 공급이 확대된 점 역시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진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유진 투자증권	BUY	52,000	2022.0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다각화 및 고객 다변화를 통한 최고 실적 성장세 전망 ■ 1Q22 연결 매출액 1,661억 원(+23.4% YoY), 영업이익 112억 원(+21.2% YoY)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4%, 21.2% 각각 증가하며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모든 사업부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여 2022년에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예상 - 이는 기존 전 사업부의 매출 증가세 유지와 함께, 신규 제품인 컨테이너 매출도 하반기에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 		
메리츠증권	Not Rated	-	2021.1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질적 성장이 기대되는 2022년 - 2022년 매출액 9,431억 원(+46.4% YoY), 영업이익 1,022억 원(+56.6% YoY) 전망 - 통신장비 분야는 2022년 삼성전자 외 글로벌 고객사 추가 시 전방위적인 투자 회복이 기대됨 - 반도체 사업은 사업장 전환배치와 추가 증축을 준비 중이며, 썸빛 흡수합병을 통한 비용 효율화가 기대됨 - 노트북 케이스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 핸드폰 사업의 성장세는 유지 - 삼성SDI와 진행하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제품은 물론 베트남 VinFast 신형 전기차 부품 공급이 기대됨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2]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년 3월 31일)